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5월 18일(토)
부부학교 개강

6월 1일(토)
청년알파 수료식

6월 4일(화)
성인 알파 수료

6월 15일(토)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이요한 3부/이성민 4부/이효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 께
예수 사랑하심은
 - 봉헌 및 1부/ 임상규 장로 2부/ 고현숙 권사 3부/ 신규식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눅 19:1-10 사 회 자
 - 찬 양 2부: 살아계신 주 시온찬양대
3부: 요게벳의 노래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새로운 삶의 출발 시리즈 3 남우택 목사
삶의 방향을 바꾸라
 - 찬 양 새롭게 하소서 다 함 께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설 교 자
 -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갈 민
대표기도
 - 찬 양 주의 가정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신 5:6-21 김진영 목사
[데칼로그3] 질투하는 하나님
 - 축 도 설 교 자
- 다음주 기도: 1부/ 조기동 장로 2부/ 김태원 장로 3부/ 김경원 권사 4부/ 이진희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렘 18:1-12

제목: 내 손에 있는 너희

기도: 장태용 집사 (다음 주 기도: 안병우 집사)

설교: 이요한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를 섬겨 나아갈 직분자(장로 3인,
권사 10인, 안수집사 5인)를 선출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주보와
게시판 공고문 참조) 5월 12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시간 변경 및 한우리 베이직

- 수요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리고 7시 45분 부터는 '한우리 베이직'이
진행됩니다.

7시	수요예배		
7:45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이요한목사	이성민목사	안현수목사
8:15	1, 2교구	3, 4교구	5, 청년부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제12기 부부학교

부부관계의 의미를 정립하고 동성함을
누리갈 내면 성장을 위한 교정입니다.

기간: 5월18일(토)~7월6일(토) 8주

시간: 매주 토요일 3:30 - 6:00pm

회비: 부부당 \$100 (교재 포함)

문의: 김규영집사 022 0299 838

카톡 아이디: DavidQkim

교육부서

- 기쁨의 나라 학부모 일일교사: 5월 19일
- 꿈의 나라 학부모 일일교사: 5월 12일
- 청년부 초원모임: 5월 12일, 3시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브라운스베이 비치
입구에서 거리전도를 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거리전도는 5월로
마치고, 6월-8월은 찬양연습과 기도회를
갖습니다.
불신영혼의 구원을위해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목적/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5	12	캄보디아늘푸른 / 캄보디아바라크
	19	예루살렘 / 화요남자제자반 / 주일여자제자반
	26	오타라

교우동정

- 소천
고 최종민 집사(오수미)가 지난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D G/D A/D D D/F# G Em7

새 롭 게 하 소 서 주 님 상 한 나 - 의 마 - 음
 주 님 마 - 음 주 - 소

1. A7sus4 G/B A/C# 2. A7sus4 A7 D A/C# Bm Bm/A

- 을 - 새 - 서 - 내 안 에 있 는 모 든 것 들 은

G G/F# Em7 Asus4 A D A/C# 3

간 절 하 - 주 님 만 원 합 니 다 - 주 님 만 바 라 는 - 간 절 한

Bm Bm/A G A7 D

나 의 마 음 - 주 님 으 로 - 채 우 소 - 서 -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 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2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윷	15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4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나	이광일	212179303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부르키나파소	권경호	21556934	62 LA	경두런	211365151	
	25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26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우 리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6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가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0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필리핀 안티폴로	최종민	272287226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참 빛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72 웰링턴	이종훈	21781999	
	35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73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경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새로운 삶의 출발 시리즈 3
삶의 방향을 바꾸라 (눅 19:1-10)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라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삭개오의 극적인 변화를 보아 선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1. 변화되기 전 삭개오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예수 믿은 후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삭개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듣고 내게 주시는 은혜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덴마크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낙태법 임신 12주→18주 확대...
 15세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 가능

덴마크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8주로 확대하고, 15-17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덴마크 보건부는 기존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했던 건 낙태법이 처음 제정된 1973년엔 12주 이후 낙태를 하는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51년이나 지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반이민 정당의 메테 티센 의원은 “끔찍한 날”이라며 “끔찍한 새 법이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AP통신은 낙태는 미국에서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지만,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뉴질랜드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반역을 고치리라”
 뉴질랜드인 대다수,
 '젠더 이데올로기' 가르치는 것 반대 '최근 여론 조사'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뉴질랜드인 대다수는 초등학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사람의 성별은 스스로 바꿀 수 있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통해 바꿀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의 의뢰를 받아 큐리아 마켓리서치(Curia Market Research)가 뉴질랜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초등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반면, 69%(3명 중 2명)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출처: 원처치).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덴마크] 미성년자에게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덴마크를 꾸짖어 주시고, 돌이켜 거룩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뉴질랜드] 어려서부터 성적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뉴질랜드가 돌이켜 바른 가치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된 직분자들이 선출되어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